

JUNE 2022

뉴저지 초대교회

자녀를 위한 순예배

부모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만들기

Holy Wrath of God

우리들 삶의 우상을 모두 없애버려요

함께 읽어보아요
출애굽기 32:1-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32:31-32)

FAMILYACTIVITY

IDOL 볼링

준비물: 종이컵 (한사람당 1개), 플라스틱 물병 또는 공

1. 종이컵을 한사람씩 나누어주고 그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적어봅니다.
2. 컵을 쌓아올려봅니다.
3. 플라스틱 물병 또는 작은 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안의 믿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굴려서 볼링처럼 우상을 상징하는 컵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게임을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안전함, 편안함, 관계, 성공, 야망, 이 모든것들이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막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을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 집착하고 의지하기 시작할때, 그 대상은 우리삶의 우상이 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이상 주지 못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 또는 물건으로 대상을 바꾸어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출애굽기 32:10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모든 죄에는 확실한 댓가와 처벌이 따랐습니다.

우상숭배의 속죄를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재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재자의 속죄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았기에, 그들을 위해 우리 또한 무릎꿇고 중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 또한 나아가기 원합니다.

TALK

1. 내 삶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보아요.
2. 우상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있을까요?
3. 내 주위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보아요.

CONCLUSION

우리들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한번 세어보기 시작하기 전엔 몰랐을거예요. 이 우상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속에 너무나도 가까이 친근히 그리고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우리가 깨달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많이 의지하고 있었을거예요. 이 우상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찾고자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다루고자 하실 때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당신이심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예요. 하나님을 예배할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평화와 신뢰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들 삶에 수많은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들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주위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듯,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